

창업만큼 어렵다는 '업종전환' 성공하려면

인력-상생-브랜드 3박자 갖춰야

청담이상 본사에서 인력충원 담당
김가네 매일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
다함께야구왕 기기 무상지원 혜택
피자마루 상생경영으로 장수 성과
이바롬감자탕 맨투맨 컨설팅 진행



프리미엄 이자카야 브랜드 '청담이상'.

/청담이상

장기불황과 청년실업으로 예비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준비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이들이 늘면서 '업종전환' 키워드가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력·상생·폐업률' 등이 자주 회자되는 단이다.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 개인창업의 3년 생존율은 39.3%다. 프랜차이즈 창업 생존율인 6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기에 개인 창업자들은 업종전환 시 프랜차이즈에 눈길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선불리 접근해서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 창업 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검토 한 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중 '인력 수급'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종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때문에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브랜드 '청담이상'은 가맹점주들의 이런 고충에 심분 공감하며 본사차원에서 인력을 충당해주고 있다. 청담이상은 다양한 요리학원과 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본사에서 조리교육 양성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한식과 양식보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일식 조리사를 가맹점에 지원해주고 있다.

김가네는 '대한민국 분식 프랜차이즈 1세대'로 가맹점과의 모범적인 상생활동

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의 김가네는 매년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일 배송시스템을 통해 루트매니저가 매일 가맹점을 체크하고, 슈퍼바이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함께야구왕은 피칭머신과 카메라센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2대 구매 시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예비 점주들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획됐다. 다함께야구왕에 따르면스크린야구를 창업하는 다수의 점주들이 약 120평~180평 내의 공간에 야구룸을 4개에서 6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야구왕은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 3위권으로 올라섰으며 프로야구선수협회 후원 통한 프로선수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 대상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나가고 있다.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업종전환 시 자연스레 폐업률이 낮은 업종으로 시선이 가기 마련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집이다. 하루에 11곳이 창업하고 8곳이 폐업 한 꼴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외식업종

보다 폐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전국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6015개 중 354개가 문을 닫았다. 이를 증명하듯 토종 피자 브랜드인 '피자마루'에는 장기 가맹점주들이 대거 존재한다. 최장 10년 동안 운영을 한 점주가 있는 가하면, 5~8년 이상 운영을 한 점주들이 대부분이다.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피자마루'의 절실한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다.

이바롬 대한민국 대표 감자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바롬감자탕'은 브랜드 평균 수명이 4년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랑 받고 있는 장수 프랜차이즈다. 이바롬감자탕은 상생을 강조해 온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답게 매출이 저조한 매장을 전담하는 메디컬팀을 보유하고 있다. 메디컬팀은 부진매장이 서비스 교육, 인테리어 리모델링, 상권분석 등을 통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전환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창업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그룹, 인사 조직개편 부회장에 기우성·김형기 대표

"글로벌사업 확장·가속화"

셀트리온그룹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사업 확장 및 가속화를 위한 포석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 기우성·김형기 공동대표 이사는 각각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셀트리온은 기존 기우성·김형기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기우성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김형기 부회장과 김만훈 사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은 셀트리온 설립 초기부터 생산, 임상 및 허가 부문 경영자로, 세계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유럽 허가 및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임상과 허가를 진두지휘해왔다. 기우성 부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단독 대표이사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셀트리온의 조직속속력을 높여 앞으로 계획된 해외 공장 설립,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및 허가를 성공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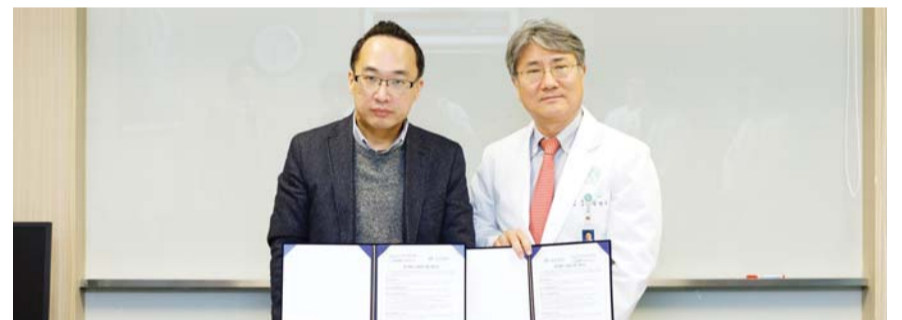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부회장

진행하고 상업화가 완료된 제품들의 품질경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셀트리온 설립초기부터 전략기획 및 재무 분야를 담당하며 해외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온 김형기 부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재무적 전문성을 발휘해 글로벌 사세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조직효율화 및 재무내실화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본연의 업무인 해외 마케팅 및 유통 등 글로벌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로의 성장을 이끄는 한편,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직판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글로벌 유통사로의 변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오른쪽)과 권혁신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 산업화로 경쟁력 제고

한국기업혁신진흥원과 교육 MOU

이대목동병원은 한국기업혁신진흥원과 기술 산업화 제반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 기술 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 협력을 위해 ▲상호 기술기반 연구, 교육과정 협력을 위한 제반 지원 사업 ▲산·학·연·병·연계 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 인프라 구축 ▲기술 산업화 등 관련 정책 제도 연구 및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대목동병원은 기술경영 분야 노후가 많은 한국기업혁신진흥원과의 업무 협약을 의과학자 교육, 원천 기술 개발과 특허권 획득으로 의료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유한양행 신규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도출 성공

엡클론과 공동개발중인 항체신약



유한양행과 엡클론은 공동개발중인 항체신약 프로젝트들 중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YHC2101)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YHC2101은 면역항암제 중 면역관문 저해제로 분류된다.

면역관문저해제란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신호를 억제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물로 암 치료 패러다

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PD-1/PD-L1을 표적으로 하는 BMS의 옹디보, 머크의 키트루다가 대표적이다.

이들 약물은 오는 2022년 각각 98억달러 및 95억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면역관문저해제는 높은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만 효능을 보이는 한계점이 있어 병용치료나 새로운 면역관문저해제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글로벌제약회사와 바이오 벤처사들은 낮은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병용 가능한 차세대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YHC2101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고 있는 T 조절세포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전으로 기존 면역관문저해제와 병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통해 PD-L1항체와 병용시 약효가 극대화 되는 시너지 효과가 확인돼 신규 면역항암제의 성공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박인용 기자

"저염·저단백 'JW안심푸드'로 간편요리"

JW중외제약 레토르트 8종 출시

JW중외제약이 '세계 공평의 날'을 맞아 신개념 건강 즉석조리식품을 내놓았다.

JW중외제약은 저염·저단백 식단 브랜드 'JW안심푸드'의 레토르트(즉석조리식품)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JW안심푸드는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 등의 함량을 줄인 제품으로 즉석조리식품을 비롯해 라면류, 밥, 소스, 에너지보충식품 등으로 구성된 건강 관리식품 브랜드다.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미생물을 차단하는 용기에 담은 무균성 완전조리식품으로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간편히 즐길 수 있다.

요리의 맛은 그대로 살리고 단백질과



염분, 인 성분을 줄인 이번 제품은 탕수육, 고기감자조림, 고사리볶음, 무소림 등 반찬류 4종과 영양밥, 치킨카레 등 덮밥류 2종, 또 콘스프, 크림스튜 등 간식류 2종으로 구성됐다. /유재희 기자

한국화이자제약 대학생 인재에 6700만원 후원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

한국화이자제약은 대학생 인재 후원을 위한 '2018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약 6700만원을 미래동반자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지원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1:1 매칭 펀드를 통해 마련되는 후원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중 우수한 인재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래의 동반자재단'에 기탁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동안 약 6700만원의 장학금이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오른쪽)가 미래동반자재단 제프리 존스 이사장에게 '2018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마련됐으며, 올해 국내 대학생 총 13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화이자제약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약 38억 3000만원의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의대생 장학금 포함)을 재단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올해 지원할 대학생 13명을 포함해 총 778명의 장학금으로 운영된다. /박인용 기자